



전북대, 튀르키예 지진피해 심시일반 성금 전달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119 보직교수단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 서울사무소를 찾아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임기를 시작한 전북대 119 보직교수단이 임명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한 첫 번째 행보다. 119의 100은 전북대가 지향하는 글로벌 Top100, 1은 처음의 마음가짐, 그리고 19는 19대를 의미한다. 양오봉 총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위로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북대 보직교수들이 앞장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조합원 복지 확대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종철 제3기 전주시설공단 노조위원장 취임

전주시설공단 노조 7주년차 제3기 노조위원장에 박종철 신임위원장이 출마가 공식화 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2기 노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또 제3기 수석부위원장은 임성호 수석부위원장이 3기 노조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함께 나서 65.18%의 득표율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공단 제3대 노조위원장의 취임식은 14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노조 7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노조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전세성 사무처장, 조수웅 총무국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윤덕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정성길 행정위원장 최우철 의원, 장병의 의원, 김세혁 의원, 전라북도 축구협회 김대은 회장 등 내외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종철 신임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행복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전주시민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수당 제도 개편, 근속승진제도 개정, 공공연수기간 제도 신설 등 후생 복지, 차량사고 자기 부담금 개선, 부서별 관용차 마련, 제설장비’ 등 필수 장비 마련 등의 업무 복지 공약과 가족사랑휴가제도 시행,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시행, 체육시설 감축 지원 혜택 제공 등 근무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태 기자



한국수학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수학교육학회(회장 고희경)는 지난 13~15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수학교육,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는 수학 문화 조성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고희경 회장의 환영사와 박병춘 총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특히 미래사회를 위한 수학교육, 학생들과 누릴 수 있는 문화 속 수학 등 기초강연과, 수학교육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의 초등수학교육, 융합, 통계교육, 교수학습 등 다양한 테마별 분과발표가 이뤄졌다. 더불어 전국통계교육교사모임, 전북교사연구회, EBS, 전국수학문화연구회 등의 워크숍도 마련됐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수학 교육의 새로운 전망과 지향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남원농협, 이동상담실 · 문화생활 교육 진행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2일 관내 농업인 조합원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상담실 및 문화생활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농협의 농업인 실익 지원사업이다. 이날 남원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분야의 이상재 강사를 초빙해 일상생활의 법률과 상담을 주제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개인별 맞춤 상담과 농협생협 부산수련원의 임재휘 강사를 통해 문화생활분야의 힐링 교육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 농협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14일 안호영 국회의원과 NH농협은행 정재호 부행장, 농협중앙회 김영일 전북본부장과 함께 ‘zgm.고향으로(지금 고향으로)’ 카드 가입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zgm.고향으로 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특화 카드로, 카드 발급 시 선택한 기부지역이 속한 관역시·도 가맹점 이용 시 최대 1.7%가 개인에게 적립되고, 매년 사용액의 일정부분(0.1%)이 공익금으로 조성된다. 공익금 지자체는 최초 카드발급 시 지정할 수 있으며, 조성된 공익금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공익상품인 zgm.고향으로 카드를 가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제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오정 지부장은 “고향을 새기고, 고향에서 혜택 받고, 고향을 키우는 ‘zgm. 고향으로’ 가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세계한인무역협 협약지회, 임원 초청 강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13일 이틀 간 해외 각지에서 성공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Gb-Up(글로벌 마인드 셋업) 강연 및 Hari-Star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b-Up 프로그램은 WorldKITA(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협약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을 발판으로,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인드 셋업 강연 프로그램이다. 기업 대표들은 강연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한 후 Hari-Star 프로그램으로 전주를 돌아보며 지역 사립대학교의 생존과 전통문화 산업과 및 글로벌 콘텐츠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학습 꾸러미 나눔

(사)우리농업자기가운동본부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병철 NH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와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지난 14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1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학습 꾸러미를 전달했다. 두 기관은 지역 아동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학습 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기탁을 결정했다. 이날 전달한 학습 꾸러미는 연필, 지우개, 종합장 사인펜, 색연필 등 어린이용 학용품 14종으로 구성됐다. 전달받은 학습 꾸러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병철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과 농촌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화수 시장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 꾸러미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농기센터, 봉소 칼슘제 제작 교육 진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송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봉소 칼슘제 교육을 실시했다. 봉소 칼슘제는 이미 선진 농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과수 영양제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이나 자재센터에서 시판되고 있지만 구입보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경영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칼슘은 다양원소로 과수 채소 등 수확물의 품질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고, 봉소는 흡수된 비료나 과실 잎에 저장된 당분과 녹말의 이동을 촉진하여 과일의 모양과 크기 등 품질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정우면 창남마을, 도로변 화사한 꽃길 조성

정읍시 정우면 창남마을(이장 정영원) 도로변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남마을 주민들은 새봄을 맞아 화사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 위해 14일 마을 도로변에 철쭉 600주를 심었다. 이번 꽃길 조성은 정읍시 시민참여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꽃길 조성에 활을 건어 올린 주민들은 오랜 기간 미관을 해치며 방치되어 있던 도로 주변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도 수거했다. 장영원 이장은 “새로운 계절 새로운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꽃길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기전대-전주병원,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과 14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주병원(의료원장 김중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기전대학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이 전주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주병원은 전주기전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료지원사업과 진료시 전달 봉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천 총장은 “전주기전대학에는 약 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며 “이번 전주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중준 원장은 “외국인을 진료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라며 “전주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덕진경찰, 실종예방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실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송초와 민수초를 방문하여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실종에 취약한 8세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사진과 보호자의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로 가정에서는 안전드림APP를 통해 보호자가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은 지문 등 사전등록과 더불어 어린이경찰복 입어보기 체험과 포돌이·포순이 인형퍼펙트과 사진찍기로 아이들에게 더욱 친근한 경찰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경아 기자

완산소방서, 전주남부시장 현장방문행진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행진’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노후 및 소규모 점포 등 밀집도가 높고 화재 우려가 심각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당부 및 관리자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정수 서장은 전주남부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를 만나 남부시장 현황을 청취하고 봄철 화재예방에 관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도보로 이동해 남부시장을 둘러보아 보이는 소화기, 유도등 비상방송설비의 소방 시설과 IT무선감지기 등의 화재감지시설을 점검했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얼굴 없는 천사, 김제시에 1억원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3일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자는 “김제시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김제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선행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여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익명의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부자의 마음을 담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